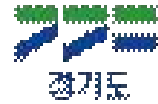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05. 29.(수) 배포	사진	0	자료	1	매수	1
담당부서	용인소방서 화재예방과 (생활안전팀)	과 장	이기봉 (031-8021-0300)				
		팀 장	송해연 (031-8021-0330)				
		담당자	정희태 (031-8021-0335)				

용인소방서, 호암미술관 찾아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대피로·피난시설 확인 중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29일 처인구 포곡읍 소재 호암미술관을 찾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화 및 집회시설인 호암미술관은 건물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고 작품전시 및 관람을 위해 낮은 조도의 조명이 사용되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대피로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피로 확보 여부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소방시설 확인 점검 ▲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등이다.

안기승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시설 등 방문 시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습관을 익혀두어 혹시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호암미술관은 삼성그룹 창업자인 호암 이병철 선생이 30여 년에 걸쳐 수집한 한국 미술품을 바탕으로 1982년 4월 개관한 사립 미술관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소방·군·경에 종사할 경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